

한국 전통주택의 실내 배색 및 색조 특성에 관한 연구

- 조선후기의 상류주택을 중심으로 -

Characteristics of Interior Color Combinarion and Tone in Korean Traditional Houses

- Focused on Upper Class Houses of the Late Chosun Dynasty -

신인호* / Shin, In-Ho

박영순** / Park, Young-So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olor combination characteristics and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color tones in interior environments of Korean traditional houses.

The results of the interior color combination analysis, it was revealed that contrast was the most dominant in architectural elements color. In the furniture, graduation, contrast and analogous harmony were mainly used. Single color harmony, analogous harmony, complementary harmony were the dominant color combination characteristics in interior accesories. Color tones of architectural elements were dull and light(pale, light grayish, light grayish) and color tones of furniture were dark and dull(dull, dark, dark grayish). However, interior accessories of *an-bang* show wide range of color tones raging vivid to dark tone, while *sarang-bang* accessories have tendency to soft, gray and dull tones. Therefore, the color tones of *an-bang* and *sarang-bang* elements show clear differences.

키워드 : 전통색채, 색조, 배색특성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색채는 실내공간에 있어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는 색채가 형태에 앞서 물체를 지각하도록 유도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환경색채에 관한 연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실내 공간에서 색채는 실내의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므로 마감재의 색채선정에서부터 가구의 색채에 이르기까지 한 공간안에 사용되는 색채들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내색채에 대한 연구는 다각도로 이루어지는데 이미지 표현어휘, 형용사 평가어휘와 어휘척도법, 색채사진, 색채팔레트, 컴퓨터 화상, 축소모형 등 다양한 연구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상은 이전의 연구들이 단순한 선호색 설문으로 사람들의 취향을 이끌어내고 있던 것에 비하여 상당히 구체화되고 다각화되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실내의 색채가 단순한 색채선호와는 달리 사용되는 공간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되기 때문이다. 즉, 색채는 그 사용되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올바르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한 공간안에서 사용되는 색채들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 따라서 사용된 단색의 색채이외에 다른 색채들간의 배색관계를 파악하는 것과 사용된 색채의 면적을 파악하는 것, 사용된 색채의 색조특성 등은 연구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서양의 경우는 각 시대별로 그 시대를 특징지을 수 있는 독특한 색채와 실내분위기가 학문적으로 규정되어 사용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전통색채는 상징색의 정도로만 알려져 있을 뿐 생활 색채 측면에서의 조사는 많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실내공간에 전통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연구들과 더불어 실내색채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으므로 전통색채에 대한 연구는 현 시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연구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존되어 있는 조선시대 전통주택의 실내 색채를 조사하고 그 배색방법 및 색조분포를 파악하여 전통적인 색채구성의 특성을 규정하고자 한다.

* 정회원, 경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강사

** 부회장,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이학박사

1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전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이므로 조사대상 선정이나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의 어려움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이를 연구의 제한점으로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다.

(1) 조사자료의 제한점

본 연구의 의도는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실내공간에 사용된 색채들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지만, 현존하고 있는 조선시대의 상류주택은 건축적으로는 보존상태가 양호하나 그 내부는 마감재료를 비롯하여 가구 및 장식품이 많이 훼손되어 현재의 상태를 측정한다는 것은 학문적으로 전혀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고 판단되었다. 그 이유는 후손들이 전통주택에 거주하면서 편의에 의하여 현대적인 마감재로 교체하거나 가구들을 교체·추가하여 현대적인 생활방식으로 변형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의 전통주택을 조사하기보다는 사료를 근거로 조선시대의 상류주택을 복원하였거나 이전한 주택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전통주택은 전문가에 의하여 충분히 검증을 받은 장소로 결정하였다.

(2) 실내색채 측정의 제한점

물체의 질감이 색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내용상 마감재의 질감은 제외된 색채만을 조사대상으로 삼아 측정하였다. 또한, 측정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내의 마감재와 가구류, 장식품은 오랜 세월을 거쳐 퇴색 및 변색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측정의 시점이 현재이므로 조사대상물의 퇴색 혹은 변색 정도는 고려하지 않았다.

13. 연구의 범위

시대적으로는 조선시대 후기의 주택, 지역적으로는 서울 및 경기 지역에서 이전 및 복원된 전통주택, 계층상으로는 비교적 색채의 사용이 자유로웠던 상류층의 주택 실내공간을 조사범위로 제한한다. 주택내의 공간으로는 안방과 사랑방의 실내로 한정하며, 실내요소로는 건축적 요소(바닥, 벽, 천장, 창호, 기둥), 가구류, 기능적 장식품(보료, 방석, 안석, 장침, 단침, 병풍, 방장 등), 상징적 장식품(역자, 족자 등)을 조사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조선시대 후기 상류주택의 복원주택이나 전시용으로 이전된 주택 중에서, 서울지역의 운현궁, 남산 한옥마을의 5가구, 경기지역인 용인민속촌의 양반가로 안방 10실, 사랑방 10실 총 20실이다. 측정대상은 각 실의 실내요소로서 건축적 요소(벽, 바닥, 천장, 창호, 다락문 등), 가구류, 기능적 장식품(보료, 안석, 장침, 단침, 방석, 방장, 화로, 고비 등), 상징적 장식품(족자, 서화, 편액 등)이다.

조사방법은 색표를 이용한 시각측색법으로¹⁾, 시각측색법은 측정

대상과 표준색표를 대조하여 훈련된 조사자가 육안으로 동일한 색을 찾아내는 방법이며, 측색에 사용된 색표는 COS시스템으로 먼셀시스템에 기초를 두고 만들어진 것으로, 측색결과를 먼셀표색기호로 표기하였다. 측색 및 촬영은 1998년 2월 16일에서 4월 22일 사이의 맑은 날 오전 10시~오후 2시 사이에 이루어졌다. 측색시 실제의 색과 일치하는 색표본을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색표본에서 몇 가지의 색표를 비교한 후 가장 근사한 색으로 간주하였다.

3. 색조체계 및 배색에 관한 문헌고찰

3.1. 색상과 색조체계

색상과 색조 체계(Hue & Tone System)의 기본 개념은 먼셀체계와 ISCC-NBS(전미 색채협회-미국 연방 표준국, 1995)색명법에 기초한 것으로, 색상과 언어(형용사)의 관계에서 볼 때 색상은 달라도 각 색상의 색조영역(일정한 채도와 명도의 범위)을 표현하는 형용사 언어는 몇 개의 범위내에서 비슷한 패턴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각 색상에서 같은 형용사가 부여된 영역은 하나의 색조(tone)영역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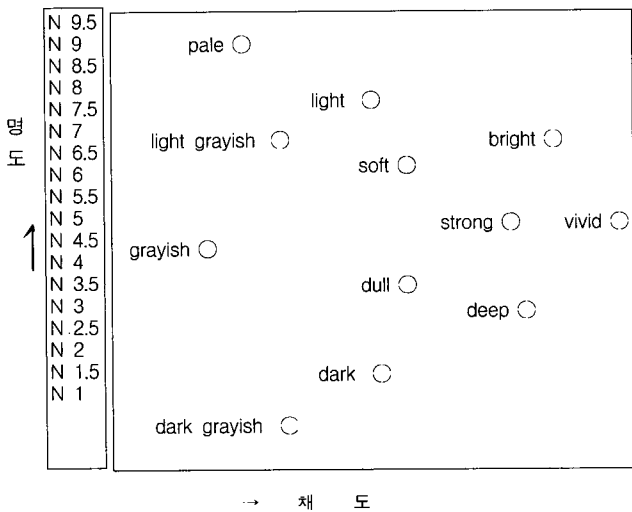
색상과 색조체계는 이전의 물리적 색체계와는 달리 심리적 색체계로서, 색을 감각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으로 의사소통하고 표현해야 하는 디자이너가 보다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단순화시킨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나라마다 다른 색조체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세계 여러나라에서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ISCC-NBS는 미국의 색채협회의 미국 연방표준국에 의한 색조체계이고, PCCS는 일본의 색채연구소에 의한 색조체계이며, NCD는 일본의 (주)색채디자인연구소에서 개발한 색조체계이다. 한국 공업규격인 KS에도 「계통색 이름」이라는 항목으로 색조체계가 규정되어 있다.

색조체계의 기본적인 생각은 모두 같으나 각 나라마다 사용하고 있는 색조의 명칭 및 먼셀 좌표상에서의 범위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는 각 나라의 특성에 맞게 기본적인 색조 체계를 다소 변형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감성에 가장 적합하게 개발되었다고 판단되는 KS체계를 분석도구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KS의 색조체계 중 미세하게 세분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KS를 기본으로 하고 PCCS를 참조로 하여 전문가 2인의 조언으로 다소의 변경을 하였다. KS체계에서는 증명도와 중채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칙칙한(dull)의 한 형용사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 부분은 상당히 넓어서 하나의 형용사로 표현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

1) 측색에 사용되는 방법은 측색계를 이용하는 방법과 시각측색법, 그리고 색명에 의한 방법 등이 있는데, 최근에 이루어진 8편의 측색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시각측색법이 가장 높음 빈도로 사용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와 같이 실내공간에서 측색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같은 조도 하에서 연구자가 육안으로 비교·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결정에 의한 것임.

2) 아이 알 아이(1997), 한국인 색채감성 척도의 개발에 관한 연구, 통상산업부, p.7

서 ISCC-NBS에서는 같은 부분을 부드러운(light)³⁾과 온화한(moderate)으로 분류하였고, PCCS에서는 부드러운(soft)과 칙칙한(dull)으로 분류하였으며 NCD에서는 부드러운(light)과 칙칙한(dull)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CCS의 경우를 참조하여 칙칙한(dull)의 경우는 부드러운(soft)과 칙칙한(dull)으로 세분하였다. 또한 저명도와 저채도에 해당되는 부분의 경우, ISCC-NBS나 PCCS, NCD에서 모두 3단계로 분류하고 있는데 반하여 KS에서는 4단계로 분류하고 있으며, 실제로 어두운 회(dark grayish)와 아주 어두운 회(very dark grayish)는 거의 유사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영역이므로 세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어두운 회(dark grayish)로 통합하였다. 또한 회색단계는 면셀의 분류를 기준으로 17단계로 분류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색조의 채도·명도상의 위치 및 분류는 다음의 <그림 1>과 같다.⁴⁾



<그림 1> 분석에 사용된 색조수식어의 명도와 채도의 위치

3.2. 배색 관련 연구

최근, 색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특히 환경색채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다. 환경색채에 대한 연구들은 크게 주택 실내 색채에 관한 연구(조성희:1990, 지영주:1990, 서명석:1991, 최은주:1992, 이진숙외 2인:1993, 신승원:1993, 김미옥:1994, 황유진:1994, 이윤정:1995 등)와 공동주택의 외장색채에 대한 연구(박돈서:1985, 권영기:1990, 김지영:1990, 김희정:1992, 천진희, 김혜원:1993, 김효주:1994, 신동순:1994, 김현태:1995, 서대열:1995, 김선수:1995 등)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노인환경색채(김혜정:1995)나 유치원 등의 아동환경색채(강순균:1991, 이정하:1994), 호텔이나 병원과 같은 일반건물 색채에 대한 연구(김필령:1990, 최민:1992)등 다양한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이 단색연구들이며 배색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나 실제로 색채는 단색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주변색과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존재하므로 색채연구를 실생활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색연구 이외에도 배색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배색이란 두 가지 이상의 색이 서로 어울려서 하나의 색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효과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 배색의 조화에서는 색상, 명도, 채도의 차이가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색상대비, 명도대비, 채도대비가 배색에서 비중이 크다. 배색에 관련된 선행 연구는 박돈서(1985)의 「건축물 외장주조색의 이미지와 2색 배색의 조화도에 관한 연구」, 천진희, 김혜원(1993)의 「복합주거단지 외부색채에 관한 연구」 및 이진숙, 조원덕, 박만식(1993)의 「주택실내색채의 공간효과에 관한 실험연구」 등이 있다. 그 결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박돈서(1985)의 연구에서는 색상에 관계없이 색조(명도와 채도)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천진희 외(1993)의 연구에서는 색상의 선정이 가장 중요하며 다음 단계로 배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진숙외(1993)의 연구에서도 색상의 영향력이 가장 커서 색상이 공간효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배색이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색상배색에 기본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인들의 배색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전통주택의 실내색채 분석

안방과 사랑방 내부의 건축적 요소, 가구류, 장식품을 측색한 결과는 각 요소별로 배색 특성 및 색조분포를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4.1. 색상과 색조(Hue & Tone) 특성

조사결과 얻어진 색채자료는 KS의 색상과 색조체계에 맞추어 분석하였는데, 날개의 색들을 색의 삼속성에 의하여 색상·명도·채도로 분석하는 것도 필수적인 분석방법이지만, 단색들이 명도와 채도를 동시에 고려한 색조체계상에서 어느 영역에 속하며 따라서 전체적인 색조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필요한 작업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안방과 사랑방의 용도별로 건축적 요소, 가구류, 장식품류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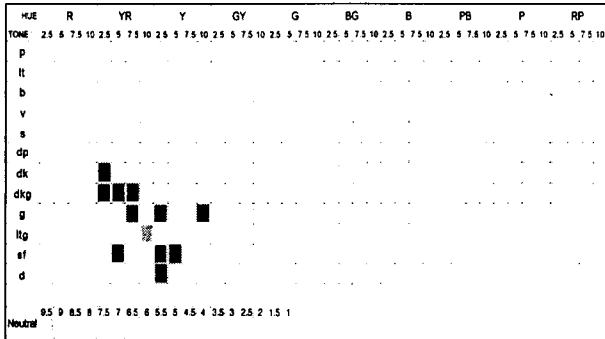
(1) 건축적 요소

건축적 요소로 사용된 색채는 다음의 <그림 2>, <그림 3>과 같이 안방과 사랑방의 경우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나, 두 공간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두 공간은 모두 색상면에서 YR과 Y계열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색조면에서 벽지와 창호는 N, 바닥은 p과 ltg에 해당된다. 이외에 기둥이나 창호의 틀로는 dk, dkg, g, sf, d 등 가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다양한 목재의 색채가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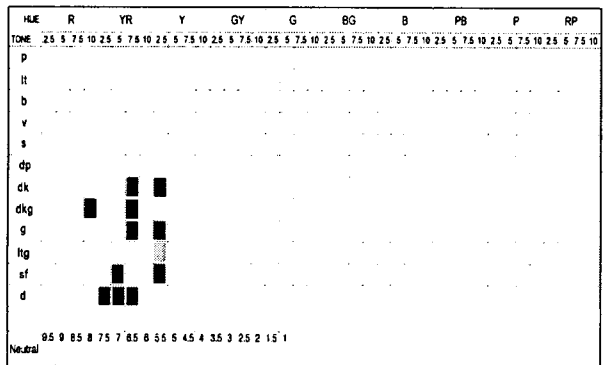
3)light보다 명도가 높고 동일한 채도의 범위에 pale이 위치하므로 light는 '부드러운', pale은 '연한'으로 해석하였다.

4)신인호, 한국 전통주택의 실내색채구성방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pp.39-42

이와 같이 전통주택의 건축적 요소는 어두운 dk, dkg, g, sf, d 등의 목재색조가 N9.5의 밝은 벽과 천장을 배경으로 가는 선적인 요소로 나타나며, p나 ltg 색조를 띤 YR, Y계 색상의 차분하고 부드러운 바닥이 배색되어 자연적이고 온화한 실내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림 2> 안방의 건축적 요소에 사용된 색채의 색조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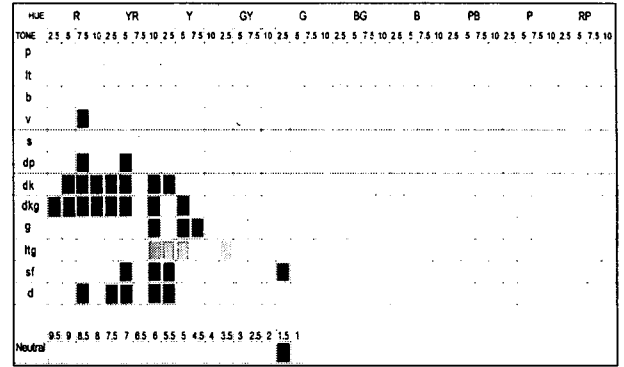
<그림 3> 사랑방의 건축적 요소에 사용된 색채의 색조분석

(2) 가구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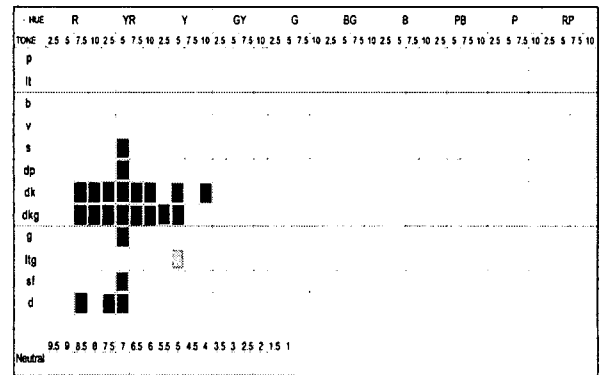
가구류도 다음의 <그림 4> 와 <그림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안방과 사랑방의 경우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안방의 경우, 색상은 YR, R, Y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YR계열에 가장 집중되어 있다. 색조는 dk와 dkg에 집중되어 있으며, 덜 어두운 sf와 d, dp도 비교적 많이 나타나고 있다. ltg의 색조에도 Y계의 색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금구장식물의 색조로 어두운 목재의 배경색에 밝게 대비되어 상당히 화려하게 느껴진다. 7.5R에 나타나는 v의 색조는 다른 색들과 상당히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화각함이나 가계수리에 사용된 색으로 차분한 공간에 활력을 넣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외에 7.5GY나 2.5G, 2.5GY의 색상은 화각함의 문양으로 사용된 색으로써 R과 보색을 이루며 화려함을 더해주고 있다.

사랑방의 경우, 색상은 안방의 경우와 유사하게 YR, R, Y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데, 색조에 있어서는 안방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색들이 dk와 dkg에 집중 분포되어 있고 sf와 d에 조금 분포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가구류의 색조는 안방과 사랑방 모두 어두운 색조인 dk와 dkg에 집중되어 있고 그 외에는 조금 덜 어두운 sf, d, dp 등의 색조에 다수 분포되어 있어 건축적 요소의 밝고 차분한 실내와 상당한 명암대비를 이루게 된다.



<그림 4> 안방의 가구류에 사용된 색채의 색조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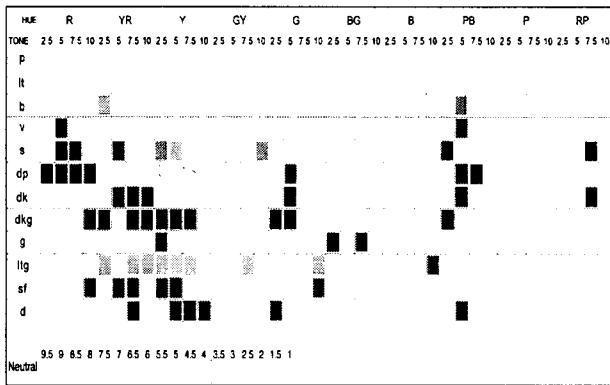
<그림 5> 사랑방의 가구류에 사용된 색채의 색조 분포

(3) 장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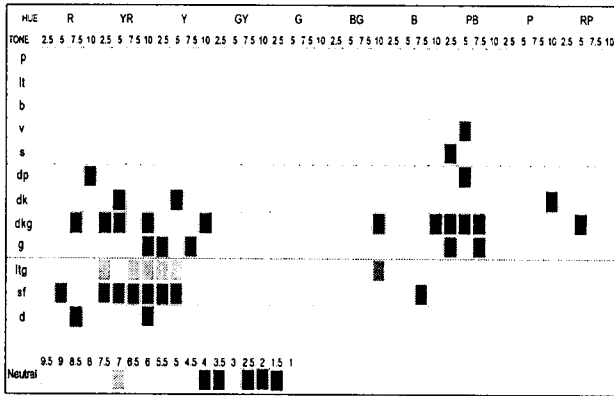
장식품의 색상과 색조는 건축적 요소나 가구류에서 나타난 것과는 달리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안방 장식품의 색조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색상면에서 10가지의 색상에 상당히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색조도 12가지의 색조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YR과 Y계에 집중되어 있으며, P계와 B계열은 사용되고 있지 않다. 또한 R계열과 G, PB, RP계열의 색상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색조면에서는 v나 s의 강한 색조가 사용되고 있다. 이는 병풍과 보에 사용된 색채들로 안방 공간을 화사하게 구성하는 요인이 된다. v색조의 R이나 RP는 안방의 보료에서 사용되는 색채로 안방을 화사하고 화려한 공간으로 구성한다. 건축적 요소나 가구류와는 달리 색조면에서 v, s, lt 등의 밝은 색조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면서도, dkg나 dk같은 어두운 색조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차분한 색조가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사랑방의 장식품에 대한 색상 및 색조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색상면에서는 YR과 Y에 집중되어 있으며, PB에 다수가 분포하고 안방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던 B계열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색조도 건축적 요소나 가구류에 비하면 비교적 분포가 다양한 편이지만 v, s, b와 같은 강렬한 순색계열의 사용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0YR의 B와 5PB의 v가 사용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보료에서 사용된 색채로서 테두리의 보조색에 부드러운 색조가 사용되었으므로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다지 화려하지 않다. 또한 안방과는 달리 N계의 사용도 빈번한데, 이

는 사랑방의 병풍에서 서화나 서예작품을 주된 소재로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랑방의 전체적인 색조특성은 화려하지 않으며 차분하고 안정적인 색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6> 안방의 장식품에 사용된 색채의 색조 분포



<그림 7> 사랑방의 장식품에 사용된 색채의 색조 분포

4.2. 배색특성

배색특성은 실내의 건축적 요소, 가구류, 장식품류의 경우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건축적요소의 경우는 인접하고 있는 부분인 바닥과 벽면, 벽면과 기둥·문틀, 벽면과 천장의 관계로 세분하여 조사하였다. 가구류의 경우는 하나의 가구에서 나타나는 색채들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즉 문판 등의 몸판과 동자간의 관계나 몸판과 철물장식간의 관계 등을 조사하였다. 장식품의 경우는 날개의 장식품에서 인접하고 있는 색채들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보료나 방석의 경우는 몸판과 테두리의 색채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병풍의 경우는 배접에 사용된 직물과 병풍 내용물의 배경색간의 관계 및 그림이나 서화 등에 사용된 색채와 배경색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건축적 요소의 배색특성은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벽면과 천장은 창호지로 마감처리된 백색의 공간이며, 실내에 드러나는 기둥과 서까래도 창호지로 마감되었다. 다음으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공간은 장판 마감된 바닥공간으로, 이것은 불을 때고 사람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점점 더 짙은 황갈색으로 변하게 된다. 배경이 되는 이러한 공간에 중첩되어 드러나는 기둥이나 창호틀의 저명도·저채도의 색채가 가는 선적인 요소로 나타나

하나의 실내공간을 이루게 된다.

가구류의 경우, 두드러지는 배색특징은 점이효과 및 강조효과, 유사색조화의 사용 등으로, 점이(gradation)효과는 <그림 9>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동일계열의 색채에서 명도나 채도의 변화를 살린 가구로써 표현되었는데,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주조색은 명도나 채도가 낮고 보조색은 명도나 채도를 높게 사용하여 생기는 경우와 주조색의 명도나 채도가 높고 보조색의 명도나 채도가 낮아짐으로써 얻어지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하나의 가구를 제작함에도 다양한 목재를 함께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유사색조화는 <그림 1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다양한 목재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로 주로 R과 YR계열의 색상이 사용되었으며, 강조효과는 <그림 1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단일한 목재를 사용하고 강조색이나 금구장식을 사용하는 경우로 금구장식의 문양이 크고 색이 밝은 안방가구에서 주로 나타난다.

장식품의 배색은 주로 보료나 방장 등의 직물에서 나타나는 배색특성과 병풍의 배접과 그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배색특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단색조화, 유사색조화, 보색조화, 인접보색조화등이 있다.

단색조화는 다음의 <그림 1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두 색간의 명도를 유사하게 유지하면서 채도의 차이를 많이 주는 형식이나 채도를 유사하게 유지하면서 명도차를 많이 주는 형식이 많으며, 유사색조화는 <그림 1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원색계열의 색채를 배색하거나 채도가 낮고 명도가 높은 색채를 배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색조화나 인접보색의 조화는 <그림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색계열의 색채를 배색하는 경우와 유사한 명도수준에서 채도의 차이를 많이 주는 배색형식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에 따른 배색의 분위기는 강렬하고 화려한 분위기나 은은하고 세련된 분위기로 분류되는데, 특히 안방은 보다 화려한 배색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랑방의 경우는 은은하고 세련된 배색처리를 한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절제와 검소를 소중히 여기던 조선시대 선비들의 깔끔하고 고아한 성품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며, 여인들의 공간이던 안방에는 밖으로 드러내지는 않으면서도 내부에서 절제된 화려함을 즐기려는 심성이 잘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그림 8> 건축적 요소의 배색팔레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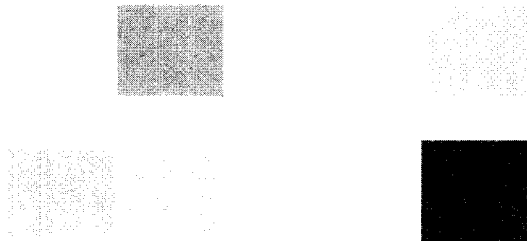
<그림 9> 가구의 점이효과 배색팔레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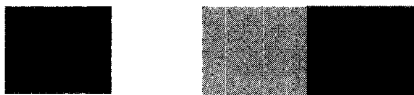
<그림 10> 가구의 유사색 조화 배색팔레트



<그림 11> 가구의 강조효과 배색 팔레트



<그림 12> 장식품의 단색조화 배색팔레트



<그림 13> 장식품의 유사색조화 배색팔레트



<그림 14> 장식품의 보색조화 배색팔레트

5. 결론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① 전통주택의 실내색채중 건축적 요소는 증명도 이상 고명도와 저채도의 차분하고 밝은 노랑계열의 실내색채를 형성한다. 가구류는 저채도·저명도인 어둡고 탁한 가구가 대부분이며, 간혹 소품으로 밝은 색이 사용되기도 한다. 장식품의 색채는 범위가 넓고 다양하나

YR과 Y계열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색상이며, 이외에도 R, RP, PB, 등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명도는 고르게 사용되어 특정한 범위를 규정할 수 없으나, 저채도의 주된 사용은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전반적인 전통주택 실내의 색조는 dk, dkg, g, ltg, sf, d와 같이 어둡고 탁한 색조가 지배적이거나, 장식품에서는 p, lt, b, v, s과 같이 연하고 선명한 색조가 사용되어 전통주택의 실내색채를 화려하게 조성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건축적 요소와 가구류에서는 안방과 사랑방의 색조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나, 장식품에서는 색조차이가 두드러져서 여성공간인 안방에 v, b, s과 같은 순색에 가까운 색들이 많이 사용되어 안방의 실내색채가 사랑방보다 화려하고 다양하며 안방이 사랑방보다 위계가 높은 공간임을 입증한다.

이와 같이 한국 전통주택의 실내공간은 무채색이 지배적일 것이라는 선입견과는 달리 이 연구에서 의외로 다양한 색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의도적으로 다양한 색채를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연의 소재를 있는대로 즐겨 사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즉, 자연이 지닌 다양성은 있는 그대로 사용해도 은은한 다채로움이 있으며, 세월의 흐름속에 변색과정을 통해 저절로 다채로움이 생성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현대적인 색채팔레트를 제안하는데 있어서도 자연스러운 변색과정을 거쳐 생성된 이러한 전통실내공간의 색조들이 새롭게 전통색채의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② 전통주택의 실내공간에 사용된 색채는 앞서도 밝힌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무채색에 가까운 탁색톤(shade 색조)의 실내였으나, 강조색으로 사용되는 일부의 색이 실내의 분위기를 결정했는데, 그 배색에 있어서는 유사색조화, 보색조화, 인접보색조화가 사용되었다. 또한 가구의 배색에 있어서는 점이와 강조의 원리가 사용되었는데, 저채도·저명도의 다양한 목재가 만드는 점이 현상은 전통적인 느낌을 살려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저채도·저명도의 목재에 화려한 경첩 등의 금구장식을 사용한 가구의 배색은 전통적인 이미지를 느끼게 하는 새로운 배색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장식품의 배색은 화려한 순색의 보색조화나, 은은한 저채도의 보색조화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직물의 경우에 나타난 보색조화로 순색이나 저채도의 배색은 전통의 이미지를 느끼도록 하는데 주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김선수, 아파트 입지조건별 외장색채측정 및 사용자 감응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 박사학위논문, 1995
2. 김기환, 환경색채와 건축문화, 건축문화, 99권(90.8.), 1990
3. 권영성·황세민, 실내디자인의 새로운 방향 모색에 관한 소고 : 한국적 실내디자인의 독창성 창출에 관한 내용, 디자인학연구, 5(1), 1993
4. 박영순 외 3인, 주거환경 디자인의 색채계획 연구방법에 관한 고찰,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0호, 1997
5. 박영순·테니스 케린, 실내환경의 색채의미를 위한 도구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제 30권 4호, 1992
6. 박영순·윤지영, 실내색채팔레트에 대한 의미평가의 문화집단별비교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5호, 1995
7. 박돈서, 한국현대건축의장의 색채계획 방법론, 대한건축사협회지 No. 218, 1987.5

8. 박돈서·제혜성, 우리나라 건축물의장색의 표준화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5(6), 1982
9. 박돈서, 건축물의장색의 이미지와 2색배색의 조화도 평가, 대한건축학회지 제29권 제127호, 1985
10. 오혜경, 조선시대 상류주택 실내공간의 디자인 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학회지 13호, 1997
11. 이종엽, 한국 실내건축에서 전통성고찰과 수용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12. 이진숙·조원덕·박만식, 주택실내색채의 공간효과에 관한 실험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4월호, 1993
13. 이진숙·서정원, 한국의 지역별 건축물과 자연환경에 대한 색채 조사 및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권 5호 통권 79호, 1985
14. 정시화, 한국인의 색채의식에 관한 연구, 조형논총 제 3호, 1983
15. 조성희, 주택내장의 색채사용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6권 3호, 1990
16. 홍진경, 한국 전통주택의 실내마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6
17. Guerin, D.A., Park, Y. S. & YangS.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Study the Meaning of Color in Interior Environment", Journal of Interior Design, vol.20 No.2, 1994
18.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의 미, 국민중앙박물관, 1993
19.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전통표준색명 및 색상, 국립현대 미술관, 1991
20. 김광연, 한국의 옛집, 서울:마당, 1982
21. 김학성, 디자인을 위한 색채, 조형사, 1995
22. 박돈서, 건축의 색, 도시의 색, 기문당, 1996
23. 박상호, 색채계획, 도서출판 효성, 1993
24. 신영훈, 한국의 살림집(상·하), 열화당, 1976
25. 이흥규, 칼라이미지 사전, 조형사, 1994
26. 최성자, 한국의 미, 선, 색, 형, 명지출판사, 1993
27. Jonathan Poore, Interior Color By Design, ROCKPORT, 1994
28. Donald Kaufman and Taffy Dahl, COLOR, Clarkson Potter Publishers, New York, 1992
29. Yoon, Chi, Park, Korean Furniture and Culture, Shinkwang Publishing Co, 1988

<접수 : 1999. 5. 3>